

비핵화 원칙적 합의·종전선언 평화체제 명문화 가능성

‘판문점 선언문’ 무슨 내용 담기나

북미회담 디딤돌·항구적 평화 첫발 경제협력 등 획기적 관계개선 관심

하루 앞으로 다가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 간 4·27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정상회담 이후 나올 결과물인 남북정상회담문 즉 ‘판문점 선언문’이다.

이 선언문은 향후 한미·북미정상회담, 나아가 남북미 정상회담의 디딤돌이 될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물론 합의문의 성격이 어떻게 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2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에서 ‘공동발표가 있다면 어떻게 명명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합의 수준에 따라 정식 발표를 할 수 있을지, 서명에 그칠지, 실내에서 간략하게 발표할지 아직 (결정이) 남았다”며 “두 정상 간에 합의가 이뤄지고 이를 명문화하면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지만, ‘판문점 선언’이 됐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판문점 선언문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획기적 남북 관계개선이라는 세 가지가 어떻게 반영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는 전 세계의 관심을 끄는, 회담의 성패를 좌우하는 의제다. 다른 의제의 경우 비핵화에서 진전이 없다면 의미 있는 논의를 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일단 회담을 앞두고 분위기는 좋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직·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어서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날 초 문 대통령 특사단과의 만남, 지난날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달 초 마이크 폼페이 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와의 회동 등에서 “조건만 맞는다면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또 2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는 조치를 결정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져 최소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는 가능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합의문에 남과 북이 65년간 유지해온 한반도 정전체



제에 마침표를 찍고 평화체제 구축하는 문제를 어떻게 답을지도 주목을 끈다. 평화체제의 울타리 안에는 전쟁을 법적으로 끝내는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국교 정상화,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의 한계, 남북 간 해상 불가침 경계선 확정, 평화보장 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로의 전환, 군비통제 등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언론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며 평화체제 로드맵을 밝힌 바 있다. 평화협정 체결 전에 종전선언을 과도적 단계로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문점 선언문

에 종전선언이 담기게 된다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중대한 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또 다른 의제는 남북관계의 진전이다. 우선 남북 경제협력의 경우 비핵화의 진전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조치가 있어야 가능한 터여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어려운 사안이다. 다만,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에 남북 경제협력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원론적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남북관계 진전 논의의 성과는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나 이산가족 상봉, 사회문화 교류 등의 분야에서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남북 정상회담을 미리보다

2018년 4월 27일 9시30분,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내 하늘색 건물,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 T2와 T3 사이로 걸어 군사분계선을 넘고 남측으로 내려온다. 문재인대통령은 여기에서 김 위원장을 맞이할 계획이다. 한반도 평화의 봄은 이렇게 열리게 된다. 세계의 눈은 판문점으로 집중될 것이고 한동안 뉴스의 중심에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세계인이 깜짝 놀랄 내용도 분명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4월 27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것이라고 확실한다.

이성춘
북한학 박사
송원대 교수



지난 2017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비하하듯 ‘로켓맨’이라고 지칭했다. 유엔 연설에서는 “북한을 파멸시켜버리겠다”며 거친말을 쏟아냈다. 북한의 김위원장은 이에 맞서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뒤이어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한 뒤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다. 급기야는 북·미간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몰고 갔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었던 근본적인 배경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북한의 경제문제와 체제 안전 보장 담보에 기인한다. 김위원장이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제시했다. 통치이념이었던 경제·핵 병진 노선 폐기를 선언하고 앞으로는 경제발전이 집중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의 이러한 전략노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은 필수이며 비핵화와 평화정착이 그 전제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예전처럼 계속해서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돼 경제를 옥죄어 온다면 김위원장의 정권은 급속도로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오늘 남북정상회담을 미리 예측해 본다면 남북이 합의한 4·27선언에서는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정착을 위한 조치, 군사적 신뢰구축 등이 핵심의제가 될 것이다. 군사적 신뢰구축 일환으로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정례적인 이산가족 상봉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경제문제가 심도있게 토의는 되겠지만 합의의제로 제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의 수행단에서 경제부

처 장관이 빠지고 합참의장이 추가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 대북제재가 유효한 현 상황에서 구체적인 남북경협 사업을 논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무엇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둘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의 패키지로 관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 전에 정외용 안보실장이 보름 만에 다시 방미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김 위원장의 협상스타일은 북한체제 특성상 김일성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항일유격대시 협상전술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통 큰 협상전술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주요한 사항은 자신이 결정하고 실무자들이 검토하는 전형적인 탑다운식의 의사결정체계를 보여줄 것이다. 단속 및 확대 정상회담은 물론 김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 여사의 등장시기도 관심거리며, 만찬시 간배사도 지켜볼 만하다. 또한 오후 기념식수 후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면서 이날 담소 내용도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평화공세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핵 개발의 시간을 벌기 위한 의도라고 보고 있다. 물론 그동안 북한의 행태를 지켜보았을 때 이러한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러나 북·미의 상호작용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이뤄갈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본다.

역사는 늘 거대한 흐름이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다. 한반도를 넘어 새로운 세계질서를 우리가 주도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정상회담이 그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을 토대로 대화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그동안의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 말끔하게 씻어주길 기대한다.

나부끼는 한반도가 만큼... 정상회담 기대 커지는 광주

시민·단체 곳곳 성공기원 행사 도심 한반도기 수백개 내걸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광주 곳곳에서는 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시민, 단체 등의 행사가 이어졌다.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향후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바라는 희망이 담겨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이날 오전 광주 북구 북구청 광장에서는 직원과 어린이 등 100여명이 참석해 ‘남북

정상 회담 성공기원 한반도기 손도장 찍기’ 행사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10m 크기의 대형 현수막에 새겨진 한반도 지도에 파란색 손도장을 찍으며 통일을 염원했다. 어린이들도 어른의 도움을 받아 손도장을 찍으며 역사적인 만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길 기원했다. 5·18민주화운동 마지막 항쟁지 옛 전남도청 앞에는 남북 정상들의 역사적인 만남을 환영하는 ‘한반도기’ 수백개가 걸렸다. 6·15 공동선언실천광주본부가 계양한 한반도기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의 성공을 기원하며 펴졌다. 또 민주광장의 한반도기는 민주와 인권·평화의 5·18정신이 평화통일로 이어지길 바라며 바람에 나부꼈다. 앞서 광주시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 선수단 참가 등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대형 한반도기를 청사에 걸었다. 광주독립영화관은 27일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남북정상회담을 실황중계한다. 이번 실황중계는 정상회담을 시청하는 관람객을 위해 이신 통일사회연구소장이 해설

자로 나와 남과 북 정상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의 의미에 대해 해설한다. 또 관람객의 질문에 대해서도 해설자가 답변을 하며 남북정상회담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짚어 준다. 행사장은 100석 규모이며 입장료는 무료다. 광주지역 학생들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TV 생중계를 통해 시청할 예정이다. 또 2018 남북 정상회담 홈페이지(www.koreasummit.kr)에 올라온 자료들을 활용해 계기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두근두근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개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장서겠습니다

무한한 태양빛을 전기에너지로 태양발전소

육상과 해상의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소

도심 속 조용한 청정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

유기물의 광합작용을 이용한 광안바이오토탄소(후진)

ENERGY 4.0

한국수력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사업현황

주요 인건연료전지, 청송풍력, 고령풍력, 서남해상풍력, 삼랑진수태양광

운영 경기연료전지, 노을연료전지, 부산연료전지, 한빛울산, 애초태양광, 고리태양광, 영월태양광, 고리풍력

한국수력원자력은 2005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추진하며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과 경제성장이 함께 하는 내일의 희망동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